

<2018년 7월 25일 수요일 새벽, 주 말씀>

1. 늘 성자는 말씀하시기를 “현재가 중요하다. 과거는 지나가서 끝났다.” 하셨다.
2. 지금 잘해라.
3. 이 순간 하나하나 잘해라.
4. 지금 ‘설교할 때’가 중요하다. 지금 ‘들을 때’가 중요하다.
5.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말씀하시기를 “<지금 행하는 것>이 중요하다. <과거의 것>과 <미래의 것>은 중하지 않다. 지금 잘해라.” 하셨다.
6. 미래에 어떤 일을 할지라도 ‘지금 것’을 함으로 인해 ‘미래의 것’도 해지기 때문이다. 또 <과거의 것>은 ‘연습’으로서 ‘지금’을 향해 왔기 때문이다.
7. <과거>는 ‘지금’을 향해서 온 것이고, <지금>은 ‘미래’를 향해서 가니, <과거 - 현재 - 미래>는 ‘하나’다. 다만, 차원을 높여서 더 좋게 해 나간다.
8. <기도할 때>도, <말을 할 때>도, <일을 할 때>도 ‘지금, 현재’가 중요하다.

9. <운전할 때>도 ‘미래, 목적지’를 생각할 것 없이 ‘운전하는 지금’이 중요하다.
10. <하나님과 성령님과의 대화>도 미래에 하는 것이 아니다. ‘지금’ 하는 것이다.
11. <지금, 현재 할 때> 중요하게 생각하고 해라.
12. <지금>이 중한 때다.
13. 사람들은 대개 ‘중한 것, 귀한 것’이 ‘지금’ 지나가고 있는데 모르고 산다. 그리고 <과거에 자신이 해서 안 된 것들>을 두고 ‘이미 끝났다.’ 한다. 하나님은 <과거에 안 된 것>을 두고 ‘지금’ 또 주시니, 이것을 잘 생각해라.
14. 하나님은 ‘지난 날 안 된 것’을 ‘지금’ 행하신다. 그러니 항상 하나님께 ‘지금’ 무엇을 하시는지 물어 보아라. 그리함으로 하나님이 너를 통해 무슨 뜻을 펴시는지 알아라. 알고 행하면, 많이 할 수 있고, 실수 없이 할 수 있다.
15. <하나님의 뜻>도 아닌 일을 하느냐. <하나님이 원하지도 않으시는 일>을 하느냐. <해서는 안 될 일>을 하느냐. - 이것을 분별하여 행하여라.
16. <지금> 잘하면, ‘과거에 못 한 것’도 할 수 있고, ‘미래’에도 잘 된다. 고로 ‘지금’ 잘하여라. <지금>이 ‘중한 때’다.

- ◎ 오늘은 <지금>에 대한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.
 <지금>이 중한 때니, 늘 ‘지금’ 잘하기 바랍니다.
- ◎ 이어서 ‘지금 내가 무엇을 잘 할 것인가?’에 대해 생각할 때
 성령께서 하신 말씀을 전해 주겠습니다.

이 말씀은 전체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.

17. 가령 운동장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, 그중 몇 사람이 말을 안
 듣고 눈에 거슬린다고 해서 모두에게 “하지 말아라.” 하면,
 그중에 말을 잘 듣고 충성한 사람까지 ‘말을 안 듣는 사람’
 취급을 하게 되는 것이다. “하지 말아라.” 한 것은 말을 안
 듣는 사람 ‘일부’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지, ‘다른 사람들’까
 지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. 고로 이러한 것을 잘 분별하고 해야
 된다.
18. <지도자들>도 교회에서 속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전체가
 그리한 것은 아니니, 이로 인해 ‘다른 일’까지 안 하면 안 된
 다. 어떤 사람이 심정 상하게 했다고 해서 그 하나 때문에 다른
 것까지 그리 대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. <고장 난 것>이 있으면,
 그 하나를 보고 잘 고치면 된다. 차가 고장 났다고 해서 “넌
 틀렸다.” 하고 차를 다 버릴 필요는 없는 것이다. 고장 난 것
 하나만 고치면 된다.
19. 이는 마치 어떤 일을 하다가 그릇을 깨뜨렸는데, 그로 인해 다
 른 일까지 안 할 필요는 없는 것과 같다. 또한 설교를 하는데,

누가 잘 안 듣는다고 해서 그 한 사람 때문에 설교를 안 할 필요는 없는 것과 같다. 고로 성령님은 말씀하시기를 “〈안 된 일〉이 있다고 ‘다른 것’ 까지 다 안 되냐. 그것이 아니다. 이를 알고 행해라. 이를 알고 행하는 것이 ‘지금 잘 해야 될 것’ 이다.” 하셨다.

20. 〈자기〉를 볼 때도 그러하다. 몇 가지가 안 된다고 해서, 그 ‘몇 가지’ 때문에 ‘수십, 수백 가지의 해야 할 일’ 까지도 못 한다고 안 하고 만다. 이같이 하면 안 된다. 〈안 되는 것〉만 고쳐서 하면 된다. 지금은 이러한 것을 알고 잘해야 된다.

21. 〈안 되는 몇 가지〉 때문에 ‘전체’ 를 못 하면, 〈약점〉 때문에 ‘장점’ 을 버리는 격과 같다. 〈약점〉은 잘 고쳐서 보강하면 되고, 〈장점〉은 그대로 두면 유익이 되는 것이다.

22. 〈물건을 살 때〉도 ‘색’ 은 마음에 드는데 ‘디자인’ 이 마음에 안 들거나, 혹은 ‘디자인’ 은 마음에 드는데 ‘색’ 이 마음에 안 들어서 못 사고 만다. 그때는 〈가장 단점이 적고, 장점이 많은 것〉을 골라서 사면 된다. 그러고서 마음에 안 드는 것은 만들면 된다.

23. 모두 인생을 살면서 “〈약점〉 때문에 ‘장점’ 까지 포기하면 안 된다.” 함을 알고, 분별하면서 가야 된다.